

구동에서



김 종 민
논설실장

‘아닌 밤중에 홍두개’였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0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밤이었다. 퇴근 후 거실 TV를 켜든 채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도중 갑자기 카카오톡 단독방에서 난리가 났다. 45년 전 광주 5·18을 떠올리게 한 순간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까지 무려 6시간이 걸렸다.

포고령 제1호는 섬뜩했다. 일체의 정치활동과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 미 복귀시 처단,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등 극단적 문구가 포함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한 배경이 됐던 1980년 5월17일 전두환 포고령보다 더 훨씬 강도가 세고 폭력적이었다.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 자칫 끔찍한 살육이 벌어질 뻔 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와 추종자들은 재판정에서 희희낙락(喜喜樂樂)하며 광주를,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

39년이 흐른 뒤였다. 2019년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학살자 전두환은 불편한 심기를 내뿜었다. 발포 명령 질문에 되돌아온 건 ‘이거 왜 이래!’였다. 끝내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문화난장



최 래 오
들꽃작은도서관장

한 해가 저문다. 연말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새로움’. 올해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움이 시작되었다. 같은 하늘, 같은 들판을 보아도 그걸 대하는 내 몸이 다르다. 새로움은 밖에서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피어난다.

자연 속에서 지내면 나를 더 또렷하게 느낀다. 무한할 것 같은 체력도 정점이 있음을, 몸이 먼저 알려준다. 사다리꼴 오르다 미세하게 흔들리기만 해도 마음이 절망하고, 지난해까지 500kg 오토바이를 몰던 날들이 언제였나 싶다. 삶의 터닝포인트가 소리 없이 시작됐다. 오르막만 보이던 길에 이제 내리막이 보인다. 이상하게도 서글픔보다 담담함이 앞선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왔으니 큰 아쉬움은 없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내려갈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려가는 지혜’다. 내려가는 길에는 다른 규칙이 있다. 힘으로 버티기보다,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남길 것과 놓을 것을 구분하는 감각. 무거운 것을 혼자 들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줄 아는 절제도 그 지혜에 포함된다.

// 새로움은 취향에서도 찾아왔다. 더는 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테이بل을 들었다. 물건을 들이는 일이 아니라, 새로움을 들이는 일 같았다. 음악은 내가 영원히 다 못

‘이거 왜 이래!’를 다시 듣게 될 줄이야

12·12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반란의 수괴로, 계엄령과 함께 광주 5·18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했다. 2년 후인 2021년 11월 그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90년 영욕의 삶을 마치면서 역사의 심판은 영원한 미제가 됐다. 미완의 진상 규명에도 국민 통합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선례를 남기는 바람에 국가 전복 시도가 또 다시 발생했다.

그날 밤에도 광주는 깨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 요지문을 통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명시했다. 5월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구했다.

시대착오적 담육에 취한 큰 도둑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K-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에 오른 4·19민주이념과 맥이 같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인 것이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현행 헌법을 개정,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온전한 내란 종식이 개헌이다.

‘윤석열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특검은 180일 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친위 쿠데타 준비 시기는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배우자인 ‘(V)’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 쓸어버리고” 독재를 꿈꿨다.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켜려 했다. 용서 안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민낯도 낱낱이 드러났다. 전두환의 모략보다 불량했다.

대한민국 법 위의 존재, 법 밖의 존재는 없다. 5·18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또 다른 국가폭력의 씨앗이 됐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누구도 국민의 빛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그 씨이 자랄 수 없도록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현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들은 ‘계몽령 1년’을 외치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사과할 일이나”며 담당하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아니다. 아직 내란 중이다. 그들은 좌파 정권으로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못저 싸우자며 ‘윤 어게인’을 소환하고 있다. 제법 건재하다.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국민들은 답답하다. 그리고 분노감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누군가가 물었다. “정말 끝났을까?” 우리 일행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란의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갈 길이 멀다. 광주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2024년 12월3일이 변곡점이다. 내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개헌을 완성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속도를 내야 한다.

새로움을 찾아서

이름 즐거움이다. 젊을 땐 노력만큼 늘지 않는 실력이 스트레스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끝없이 공부할 음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좋다. 자실에 세워둔 기타 줄을 지나가다 톡 튕기는 일도 놀이가 된다. 집 안의 드럼은 연주자 아니라 감정을 풀어내는 가구다. 못 부르는 노래도 이제는 나만의 감정으로 즐길 수 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빠지니, 남는 것은 순수한 재미뿐이다.

클래식 중심이던 음악 감상은 테이بل로 듣는 재즈로 천천히 이동 중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So What’을 들으며 트럼펫과 베이스, 피아노, 색소폰의 소리를 잡아내고, 주고받는 대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다. 누가 주인공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음악.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자유로움이 좋다,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파도와 달리, 작은 말들이 이어지며 만드는 여유가 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의 기동은 독서와 음악이다. 책장 앞에 서서 표지만 보아도 생각이 움직인다. 독서는 생각을 유연하게 한다. 책은 나를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로 데려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저점에 들러 우연히 몇 년 전 읽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가미’ 45권을 만나서 구입했다. 마음이 들른다. 새로움은 ‘처음’이 아니라 ‘다시’에서 오기도 한다.

새로움은 여행과 만남에서도 자란다. 같은 풍경과 반복된 생활이 이어질 때 낯선 길을 찾아 나선다. 남해 여행에서의 해돋이, 제주 여행길에서 만난 북카페의 소박함과 다양함이 오래도록 남았다. 며칠 전 고창에서는 노동저수지의 달빛수상길을 걸으며 작은 마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걸음 끝에 만난 ‘황윤석 도서관’의 시설과 규모에도 놀랐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공간이 나를 만든다’

는 문장을 만났다. 그렇다면 내 집의 취향과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 나는 내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새로움은 바깥 풍경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보게 하는 질문에서 자란다. 집을 손보는 일이 곧 삶을 손보는 일로 이어진다.

시선도 바뀌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면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선글라스를 썼다. 나는 웃으로 생활을 구분하듯, 선글라스로 여행의 자유를 구분해 보려 한다. 바람을 안고 달리는 오토바이의 자유와, 자유롭게 싶은 선글라스가 같은 마음으로 느껴진다.

내 수첩에는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이 적혀 있다. 나는 한 주에 한 사람, 목적 없는 만남을 가진다. 그 만남 자체가 새로움이 된다. 새해에는 일기처럼 쌓인 삶의 일상을 묶어 책으로 내고 싶다.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찾은 즐거움, 내려가는 길에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 방법을 적어 보고 싶다. 남은 날들을 자연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 쉬지 않고 나아가는 공부, 설렘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나를 가꾸어 가고 싶다.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루틴과 오늘의 선택 옆에 붙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새로움을 찾는다고 늘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제와 다른 질문 하나, 이어지는 만남, 책 한 권, LP판 위에 올리는 떨리는 손, 그리고 청바기의 바람 소리. 그렇게 작은 새로움을 주위 담으며, 나는 조금씩 천천히 새해로 들어선다. 올라가는 꿈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키는 꿈이 있다. 오늘의 나를 오래 데리고 가는 꿈. 그 꿈을 위해 나는 내 몸의 말을 듣고, 음악을 듣고, 책장을 넘기며, 집을 나서며 조용히 새로움을 연습한다, 그리고 기쁘게.

‘NFC 스키밍’ 범죄 주의보

대용 리더기를 가져다 대 카드 정보를 복제하거나, 전화로 문자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저장된 카드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탈취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ATM이나 POS 단말기에 부정 결제를 하거나,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및 디지털 범죄 앞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예방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우현·여수경찰서 경무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통큰 합의 광주공항 통합 이전사업 성공적 완수 기원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TF 6차 협의체에서 광주·전남·무안이 상생하는 새로운 통합공항 추진에 뜻을 모았다. 통큰 지원에 따른 통큰 결단이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남은 문제도 원만히 풀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기반이자, 호남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앞당기는 매개체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업이다.

공동발표문에 명시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무안 주민지원 1조원 자금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등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4차 사전협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조율해 한층 진전됐다.

이제 시작이다.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대구 통합공항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확정까지 3년11개월이나 걸렸다. 공항 이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KTX 개통 시점이 2027년 말로 제시됐다.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소멸위험 제대로 인지해야

행정구역상 시(市) 단위에 속한 도농복합도시의 면(面) 지역이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는 입증 자료가 나왔다.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대책이 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8%에 해당하는 29곳이 고위험(0.2 미만)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진입 단계(0.2~0.5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95%까지 늘었다. 전남 17개 군(郡) 단위 소멸 고위험지역과 비교해서도 심각하다. 24곳이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고흥군(0.10)에 비해 더 낮다.

도시권은 동(洞)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 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단위만 분리하면 대다수가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준을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邑)·면 실제 인구로 바뀌어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재촉해야 한다. 실제로 시민사회와 일부에서 불공정과 모호성, 공론화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안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명칭은 ‘김대중공항’으로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공항 종전부지는 ‘미래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 책임을 명시할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중요한 국정과제다. 제반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6차 협의체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했다. 분명히 이전보다 분위기가부터 달랐다. 균형발전 기조 아래 적극 지원을 약속해 결실을 맺었다. 전격적인 합의였다.

오랜 현안이다. 쉽지 않았지만 순탄하길 바란다.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일이 아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었다. 거대한 도약과 상생의 출발점이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상호 이해하면서 장기 표류해온 난제를 해결했다. 향후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탄탄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단단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군 지역보다 더욱 취약한 현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도 배려받을 수 있도록 실질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멸 위험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 전남은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일각에서 소멸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춤형 처방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의 실태까지 면밀 분석하고 반영해야 하겠다. 군 단위에 시책의 우선 순위가 맞춰진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었다. 시 단위에서 간신히 인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모순이었다.

소멸 위험도가 높을수록 독거노인가구와 빈집도 더 많고, 일지리의 양적, 질적 격차도 크다. 청년이 빠져나가고 마을이 텅 비고 있다. 각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에 집중해 체감도를 제고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되려 배제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다카시 광장

되돌이표 인생

설재훈

이게 쓴 글에 걸고
세상을 돌고 도는
나의 생은 썸 없이 도는 것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이 말처럼

※시작 노트

낙엽 지고, 가을이 떠나간 뒤만
찬바람만 스산하게 부는광장 한켠에
계절을 아랑곳하지 않고 돌고 있는물레방아

마치 돌고 도는 일이 타고난 숙명인듯,

오늘도 돌고 또 돈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독자투고

최근 30억대 소액결제 사기 사건, 해외 여행객을 노린 지능적인 해킹수법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스키밍 범죄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흔잡한 장소(지하철, 인파 많은 거리 등)에서 NFC 기능이 활성화된 스마트폰에 휴